

# 사라질 위기 도시공원 살린다 서울 면적 절반

한국 정부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동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자치단체 대신 공원 땅을 사들인 뒤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지난 2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런 내용의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예산 부족 등으로 오랜 기간 내버려 둔 미개발 공원이다. 서울 남산공원, 서리풀공원, 대구 범어산 범어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이 2000년 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서울시 면적(605km<sup>2</sup>)의 절반에 이르는 340km<sup>2</sup>의 공원 부지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소유한 등산로 입구, 약수터

등 공원 땅에 등산객이나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난개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실효 대상 공원 부지 340km<sup>2</sup> 가운데 130km<sup>2</sup>를 꼭 지켜야 할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자체는 앞으로 5년간 총 4조 3,000억원을 투입해 우선관리지역 가운데 51.6km<sup>2</sup>를 사들일 예정이다.

이 중 2조 4,000억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해 11.3km<sup>2</sup>를 매입한다. 이 밖에 토지은행 활용, 국고 연계사업 등을 통해 총 16조 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당정은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높기로 했다. 아울러 공원 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행 한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당정은 효력을 잃는 공원 부지 가운데 약 25%인 90km<sup>2</sup>의 국공유지에 대해 실효를 유예하기로 했다. 즉 해당 국공유지는 10년간 공원 부지로 계속 묶여 있으며, 지자체의 공원관리 실태 평가 등을 통해 유예 기간이 연장된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20km<sup>2</sup>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생아 수, 36개월 연속 최소 기록

올 1분기 출생아 수가 8만3,100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1981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3월 출생아 수도 36개월 연속 최소 기록을 이어갔다.

지난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7,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7%(2,900명) 감소했다. 월별 출생아 수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40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2016년 4월 이후 36개월째 역대 최소 기록을 이어갔다.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8만3,100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7.6%(6,800명) 감소했다. 1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11만7,952명으로 전년도(11만6,004명)보다 소폭 늘었으나 이듬해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2017년 9만명대, 2018년 8만 명대로 내려갔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0.07명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하락했다.

통상 매년 1분기 출산율이 가장 높

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0.98명)와 마찬가지로 1명 아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출생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9,100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0.7% 감소했다. 이혼은 2만7,000건으로 5.1%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30~34세 여성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혼인도 몇 년째 계속 줄고 있어 출생아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사망자 수는 2만4천9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00명(-1.6%) 감소했다. 1~3월 사망자 수는 7만5천100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8.2% 줄었다.

이혼은 올해 3월 기준 9천100건으로 작년 3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1~3월 이혼은 2만7천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1분기에는 특히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인 이혼이 작년 1분기보다 1천500건(18.3%)이나 늘었다.

통계청은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의 이혼 건수가 많은 것으로 미뤄볼 때 '황혼 이혼'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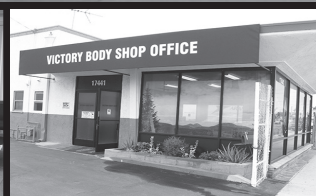
#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